

박용철 시론

—서구 시론의 수용을 중심으로—

김 병 택*

차 례

- I. 서론
- II. 서구 시론 수용의 배경
- III. 하우스먼의 수용
- IV. 릴케의 수용
- V. 결론

I. 서론

朴龍喆의 문학 활동이 다방면에 걸쳐 전개되었음은 익히 알려진 그대로이다. 그는 시인으로서 74편의 창작시를 남겼고 비평가로서 13편의 평론을 썼으며 15편의 수필과 6편의 희곡을 번역했다. 그런데 이에 못지 않게 중시해야 할 것은, 그는 무려 308편의 시를 번역했다는 사실이다. 번역시의 원작자들은 독일·영국·아일랜드·미국·일본의 시인들인 괴테, 실러, 하이네, 릴케, 로버트 브라우닝, 알프레드 테니스, 매슈 아널드, 토마스 하디, 존 키츠, 로버트 번즈, W. B. 예이츠, 토마스 무어, 에밀리 디킨슨, 北原白秋, 西條八十 등을 망라하고 있어서 그의 시에 대한 의식이 서구시(해외시) 또는 서구 시론과 관계가 깊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그 추측은 많은 독자들에게 서구시를 소개하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려는 의도와 함께 서구시 또는 서구시론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하는 의도를 지니고 있었다는 명제로 상당히 구체화시킬 수 있는 정도의 것이다. 이러한 점은 위에서 열거한 시인들의 시가 주로 순수 서정 시이고 기교적인 면보다는 정신적인 자세를 드러내고자 한 시이며 삶을 노래하는 데에 우수와 같은 어두운 면을 내포한 시라는 데에서 쉽게 확인된다.)

박용철의 그러한 의도는 그가 직접 주재한 『詩文學』誌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그는 『詩文學』 창간호에 실려의 「해토르의 이별」, 괴테의 「미논의 노래(二)」 등 2편을, 제2호에는 하이네의 「내 눈물에서는」, 「다수한 봄밤」, 「나를 사랑하는 줄이야」, 「남의 나라에서」, 「일어나며 묻는 말」, 「뺨에 뺨을 대어라」, 「한마디 말씀에다」, 「노래의 날개에 너를 실고」, 「아름다운 고기잡이 아가씨」, 「술 나무는 외로이 서서」 등 3편을, 제3호에는 하이네의 「원망도 앓는다」, 「아름다운 세상」, 「사랑을 보낸 다음에는」, 「아름다운 희망은」, 「저희 들은」, 「숲 가운데로」, 「서투른 길에」, 「오월이」, 「너를 사랑하므로」, 「내 아내 되는 날에는」 등 10편을 번역, 발표했던 것이다. 또한 그는 A. E. 하우스먼의 시론인 「詩의名稱과 性質」²⁾(The Name and Nature of Poetry)을 번역하여 『文學』誌

1) 김용직, 「시문학과 연구」 「한국 현대시 연구」 (일지사, 1979), p. 230. 참조.

2) 박용철이 「譯者 附記」에서 밝힌 내용은 다음과 같다.

“詩人이라면 얼마쯤 조출한것이 예사일것이나 하우스먼같이 조출한 詩人은 다시 드물것이다. 大詩人의 稱을 듣는데는 詩의量이 오히려 重要한듯한 西洋에서 그는 다만 두권의 詩集으로 現代英國의 最大詩人의 한사람이란 자리를 가지고 있다. 그의 詩風의 簡素함은 그의 性格의 自然한 結果일것이나 이講演을 읽은 다음에는 그의 詩作의 態度 또한 그러하였는가하고 도리켜 생각해지는 것이 있다. 모두가 두페이지넘는것이 드문 短詩 A Shropshire Lad와 Last Poems를 합해서 壹百十餘篇 二百項 다른 散文의 述作도 별로없다. 그는 캠브릿지大學의 羅典文學敎授로있다. 이講演이 英國文學界에서 대단 重視된 것은 문돈타임스紙가 即時 概要를 記載했든 것으로 一端을 짐작할수있다. 이譯文에 입니다調를 쓰지않고 이다調를 쓴 것은 單純히 簡略을 위한것이요 便宜上 數三處 省略한공도 있다. 텍스트는 A. E. Housman, *The Name and Nature of Poetry*, Cambridge Univ. Press”(박용철 전집(평론집), pp. 74~75.).

이 글은 1933년 5월 9일 캠브리지 대학에서 있었던 기념 강연의 원고인데

제2호(1934)의 권두 논문으로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하우스먼과 릴케를 수용하고 씌어진 자신의 시론 「詩的 變容에 대해서」를 『三千里 文學』(1938)에 발표한 바 있다. 이 두 시론이 한국 시론의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는 데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점을 놓고 볼 때 그의 번역시와 서구 시론의 수용에 대해 고찰해 보는 것은 그의 문학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한국 근대시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일 것이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과제들 중 서구 시론의 수용 쪽에만 초점을 맞추어 첫째, 서구시론 수용의 배경, 둘째, 하우스먼의 수용, 셋째, 릴케의 수용 등에 대해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이 글의 텍스트는 박용철의 부인인 林貞姬가 정리하고 詩文學社가 편찬한 『朴龍喆全集』 全2卷(大同印刷所, 1940)임을 밝혀 둔다.

II. 서구 시론 수용의 배경

박용철이 서구 시론을 수용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그 자신이 직접적으로 밝힌 바는 없다. 그러나 그가 서구 시론을 수용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그 사실에 대한 배경은 외적 증거(external evidence)와 내적 증거(internal evidence)에 의해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

첫째, 박용철은 외국어, 특히 독일어와 영어를 잘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가 명석한 두뇌의 소유자라는 점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일화를 통해 쉽게 확인된다. 그가 4세가 되던 1907년에는 일본에 저항하는 애국지사들의 의병운동이 끊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그는 그 해 겨울 外家 근처인 창평군 창평면 수곡에 가 있었다. 그때 그의 부친이 외가에서 「四字小學」을 가지고 와 한 자 한 자를 일러주었더니 다음 해

Selected Prose(Cambridge Univ. Press, 1961)에 수록된 원문과 박용철이 번역한 「시의 명칭과 성질」을 비교해 보면 후자에는 두 개의 각주와 13페이지가 생략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봄에는 한 권을 능히 알게 되었다. 7세 때 정월에는 그보다 3년 위인 사촌 누나가 한글 철자를 배우는 것을 보고 한 장 써 달라고 청하여 써 주었더니 2, 3일 후에는 다 익혔고 다음에는 받침법을 두세 가지 알려 주었더니 금방 통해서 그 후 가을부터는 밤마다 당시의 신소설을 한 권씩 읽었다. 그리고 그 해 겨울 시험삼아 주판을 가지고 수를 불러 주며 놓는 법을 가르쳤더니 불과 수일 만에 더하기와 빼기에 능통하였다. 시험삼아 10위 이상의 긴 숫자를 불러도 그는 절대로 잘못 놓는 일이 없었다. 培材學堂에서의 그의 성적은 제1학년 1학기 때 성적 순위가 2위였다. 1918년 培材高普 졸업 후 수개월 앞두고 그는 학교를 자퇴, 고향으로 내려간다. 그 이유는 첫째, 3·1운동으로 인해 국내 사정이 학교에 순조롭게 다닐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 둘째, 동경 유학을 목적으로 학교 졸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추측이다. 1920년 겨울, 그는 일본 동경으로 건너가 다음 해인 1921년에는 동경 靑山學院 중학부 제4학년에 편입한다. 후에 靑山學院長이 되었고 일본 기독교 감리교회 감독으로 피선되었던, 당시의 靑山學院 중학부 부장 阿部 선생은 수업 시간뿐 아니라 어디서나 龍兒가 수재라고 칭찬하였다. 靑山學院을 졸업한 그는 1923년에 동경 外國語學校 독일문학과에 입학하여 그 반의 급장이 된다. 外國語學校에서 1학기를 마친 그는 다시 귀국하여 한동안 고향에 머물러 있었다. 이때에 학업을 중단하고 다시 등교하지 않은 이유는 당시 동경의 관동대 지진과 가정 사정 때문이었다. 그 후 그는 延禧專門學校 文科 제1학년에 편입하여 수개월이 지나 그만두는데 이때 그는 더 배울 것이 없어서 그만두었다고 부인에게 말했다고 한다. 延禧에 다닐 때, 문학 담임이었던 鄭寅普 스승에게서는 “朴君의 작품은 장래가 유망합니다.”라는 작품 평을 듣기도 했다. 그때 칭찬을 받은 작품은 그의 첫 콩트인 「개싸움」이었다.³⁾

이와 같은 전기적 사실들은 그가 서구 시론을 수용하게 된 직접적인

3) 이어령 편저, 『한국문학 연구 사진』 (우석출판사, 1990), pp. 182~185. 참조.

배경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간접적 배경으로 제시될 수 있는 가치는 충분히 지니고 있다. 즉 그가 서구 시론을 수용하는 데에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외국어, 특히 독일어·영어의 해독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박용철은 서구시(해외시)를 배우겠다는 열망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박용철의 창작시는 74편에 불과한 데에 비해 번역시는 308편이다. 『朴龍喆全集』에 수록된 번역시는 괴테 시편 13편, 실러 시편 「해토르의 이별」 1편, 하이네 시편 66편, 릴케 시편 7편 등의 독일시와 영국시 64편, 아일랜드 시편 11편, 미국 시편 20편 그리고 사라 티스데일의 시 22편이다. 그 외에 拾遺로 수록된 해밀턴, 휴퍼, 사포, 하이네 등의 시 26편과 ‘색동저고리’라는 이름 아래에 모아 놓은 로세티, 島木彦, 스티븐슨, 블레이크, 小學兒童, 薄田泣墓, 西條八十, 加藤마사오, 吉田紘二郎, 金子미미스, 블란서 동요, 北原白秋, 茅野雅子, 타고르, 메어, 英國古謠, 데이비스 등의 童詩 78편이 수록되어 있다.

박용철이 이처럼 서구(해외)의 많은 시인들의 시를 번역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서구시(해외시)를 번역하여 한국에 소개함으로써 한국시의 수준을 서구시(해외시)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의도의 소산이지만, 이면적으로는 서구시(해외시)의 번역을 통하여 서구시(해외시)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우겠다는 열망을 표출한 것이기도 하다. 박용철이 번역한 시들은 순수 서정시여서 민중들의 삶의 한복판에 가로놓여 있는 사회적, 정치적 문제들을 외면하고 있는 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또한 그 서정시들은 릴케, 예이츠 등 몇몇 시인들의 시를 빼면 거의 대부분이 근대시이다. 이것은 그의 한계이므로 더 이상 여기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시선을 번역 쪽으로 돌려서 생각해 보면 박용철이 아닌 누구라도 번역만으로 그 배움의 열망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 열망의 실현은 시의 번역뿐만 아니라 시론의 번역과 수용으로까지 이어져야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점은 그가 하우스먼의 시론을 번역했

을 뿐만 아니라 하우스먼·릴케의 시론을 수용하기까지 했다는 점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박용철의 서구 시론 수용의 배경은 그 자신이 직접 밝힌 실증적인 자료가 발굴되지 않는 한 외적 증거와 내적 증거에 의한 간접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서구 시론 수용의 배경에서 중시해야 할 것은 그 배경의 이면에 서구시(해외시)를 배우겠다는 열망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김억에 의해 이루어진 상징주의 시론의 수용이 당시대 한국의 사회 현실 속에서 끝없이 고뇌하던 지식인들의 내면 세계와 관계가 깊었던 것과는 확실하게 구분된다.

III. 하우스먼의 수용

박용철이 주도하여 만든 잡지인 『文學』지 제2권(1934. 4)의 권두 논문 「詩의名稱과性質」은 A. E. 하우스먼의 시론인 「The Name and Nature of Poetry」를 번역한 글이다. 박용철이 하우스먼의 시론을 번역한 것은 그것을 계기로 시문학파의 시론을 주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문학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하우스먼 시론의 성격과 하우스먼 시론의 수용 사유, 하우스먼 시론의 수용 내용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하우스먼의 시론은 무엇보다도 순수시론이다. 그 순수시론은 아베브르몽의 순수시론도 포함되는 광의의 순수시론 중의 하나로 그 성격이 규정되기도 한다.⁴⁾ 또한 그 순수시론은 하우스먼 자신이 직접 전개한 시론의 내용을 통해 볼 때 창작 과정의 시론이라 할 수 있다.⁵⁾

내가 얼마쯤 有利하게 論辯할수있는 文學的主題가 실상 하나 있기는하다.

4) Alex Preminger, *Princeton Encyclopedia of Poetry and Poetic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9), p. 645.

5) 한계전, 「하우스먼 시론의 수용과 순수시론」, 『한국 현대시론 비판』 (일지사, 1983), p. 138.

왜그런고하니 그것은 同時에 科學的이 되어서 科學人이라야 假託없이 그것을 取扱할수있고 또 大多數의 文學人보다는 실상 適任일것이므로 '詩作的 技術' 그것은 내가 오늘의 주제로 생각해보았든것이다. 거기 伏在해가지고 있는 一聯의 事實은 그것을 實地로 行使하고 있는 사람도 大部分 그것을 모르고 있고, 그들이 成功할 때에 그 成功은 本能的 分別과 聽覺의 自然的優秀에 의거하는 것이다. 모든 詩作的 條件이되어가지고 있는 自然法則과 좋은 詩作이 줄수있는 快感의 秘密한 源泉을 包括하고 있는 이 潛在的基礎는 批評家에게 많이 探索되지 아니했다.⁶⁾

하우스먼에 의하면 '詩作的 技術'은 시에 있어서의 본질적 요소이고 시의 성공은 본능적 분별과 청각의 자연적 優秀에 의거하는 詩作的 技術에 따른 결과이다. 이것은 박용철이 "詩라는 것은 詩人으로 말미암아 創造된 한낱 存在이다. 彫刻과 繪畫가 한 개의 存在인 것과 똑같이 詩나 音樂도 한낱 存在이다."⁷⁾라는 소위 '存在로서의 詩觀'과는 어느 정도의 맥이 닿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方向이든 詩란 한낱 高處이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 내려온다. 詩의 心境은 우리 日常生活의 水平情緒보다 더 高高하거나 더 優雅하거나 더 섬세하거나 더 壯大하거나 더 激越하거나 어떻게 '더'를 要求한다. 거기서 우리에게 까지 '무엇'이 흘러 '내려와'야만 한다."⁸⁾는 견해와는 구별된다.

하우스먼은 문예비평가의 재능을 상당히 높은 위치에 두고 자신의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데 이 점은 예를 들면 "雄辯家 詩人 聖者 賢人과 英雄의 數가 먹말기에 비하면 稀貴한 것은 사실이나 할례 彗星의 出現보다는 더 흔하다. 文藝批評家는 그 彗星의 出現보다 더 귀한 것이다. 그리고 한 世紀에 한 번 혹은 두 世紀에 한 번 이 文藝批評家가 出現한다 할지라도 저 少數의 所爲 古典學徒 가운데서 그것이 出現할 機會의 比數를 이 數學의 本家에서 어느 분이 내게 가르쳐 주시면 좋겠다

6) A. E. 하우스먼, 「詩의 名稱과 性質」, 『박용철 전집』 (평론집) (대동인쇄소, 1940), p. 53.

7) 박용철, 「詩文學 創刊에 대하여」, 『박용철 전집』 (평론집), pp. 142~143.

8) 위의 글, 『박용철 전집』 (평론집), p. 143.

.⁹⁾라고 한 데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박용철이 하우스먼의 시론을 수용하게 된 사유는 대체로 하우스먼의 시와 박용철의 시가 지니는 내용과 분위기의 유사성을 통해 유추할 수 있을 것 같다.¹⁰⁾ 이 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하우스먼의 시 세계에 대한 논자들의 논의를 살펴보기로 한다.

하우스먼은 「슈럽셔의 한 젊은이(A Shropshire Lad)」(1896)를 비롯한 세 권의 시집으로 당대의 저명한 시인이 된 사람이다. 그의 대표작 「슈럽셔의 한 젊은이」는 처음 500부를 자비로 출간했었는데 점차 그 진가를 인정받게 되자 1922년에는 3개월 만에 2만 1천 부가 팔릴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둔다. 그 1922년은 엘리엇이 「황무지」를 발표한 해이기도 하지만 영국시단에 아직 모더니즘의 바람이 불기 이전이었음을 생각할 때 그는 전통적인 영시의 맥을 이은 마지막 몇 시인 중의 한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다.¹¹⁾

세 권 시집 가운데서도 주로 그의 이름을 지탱하게 한 것은 첫 시집 「슈럽셔의 한 젊은이」로서 이 시집은 63편 시의 連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생에 대한 아이러니컬한 환멸이 主調를 이루고 있다. 그의 세련된 염세관은 특히 토마스 하디의 작품 분위기에 가까워 작품이 주는 만족감보다도 生의 불안을 더 뚜렷하게 느끼게 하지만, 그 쓸쓸한 연민(pity)은 하디의 폭넓은 연민(compassion)에는 미치지 못한다. 오히려 이 비극적이라고 할만한 환멸이 하우스먼의 학자적 생리의 소산인 일종의 금욕적인 자기 금지 가운데 차분하게 갈아 앉아 억제와 절도를 간직하고 있는 점이 「슈럽셔의 한 젊은이」의 특징이다.¹²⁾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말한다면 하우스먼의 시는 낭만주의 정신에 토대를 두고 있음이 확실하다.¹³⁾ 낭만주의의 특질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9) A. E. 하우스먼, 「詩의名稱과性質」, 「박용철 전집」(평론집), pp. 142~143.

10) 김용직, 「높고 깊은 차원의 모색 : 박용철론」, 「한국 현대시사」(1) (한국문연, 1996), p. 132.

11) 이창배, 「현대 영미시 해석」(탑출판사, 1995), p. 47.

12) 한국영어영문학회, 「영국문학사」(신구문화사), p. 497.

로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 데에 있다. 따라서 낭만주의는 과거나 미래에 집착하며 그 집착은 불안과 허무의 표현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그러한 경향은 박용철의 시에서도 똑같이 발견된다.

나 두 야 간다
나의 이 젊은 나이를
눈물로야 보낼거나
나 두 야 가련다

안옥한 이항구-들 손쉽게야 버릴거나
안개같이 물어린 눈에도 비취나니
골재이마다 발에 익은 죄수부리모양
주름살도 눈에 익은 아-사랑하는 사람들

버리고 가는이도 못 있는 마음
쫓겨가는 마음인들 무어 다룰거나

-
- 13) 참고로, 하우스먼의 시 「나무 중 제일 아름다운 나무, 벗나무」의 全文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나무 중 제일 아름다운 나무, 벗나무가 지금
가지에 꽃을 매달고
숲 속 승마도로 가에 서 있다.
부활절 주간을 대비하여 하얗게 단장하고서.

이제 나의 70년 인생에서
20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라,
70의 봄에서 20을 빼면
겨우 50이 남을 뿐이다.

그런데 꽃이 만발한 것을 보기 위해서는
50의 세월은 작은 기간이다,
그래서 나는 숲 속으로 가련다.
벗나무에 눈이 매달려 있는 것을 보기 위하여.
(이창배 역)

돌아다보는 구름에는 바람이 회살짓는다
앞대일 어덕인들 마련이나 있을거나
나 두 야 가련다
나의 이 젊은 나이를
눈물로야 보낼 거냐

나 두 야 간다

—박용철, 「떠나가는 때」¹⁴⁾ 전문

박용철은 이 시를 29세 때에 썼는데 시인의 나이가 시인의 정서적 수준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박용철에게 있어서의 29세는 스스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객관적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비판적 평가를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이였다. 박용철이 이 시를 쓰고 나서 친구인 영랑에게 이 시와 함께 편지를 보내면서 기탄없이 비판해 주기를 요청한 것은 그러한 점을 확인해 준다. 박용철은 그 편지에서 “그것은 지을 때의 經路로보면 象徴의本格을 간것같네. 꿈같이드러누운가운데 어쩐지 눈물흘리며 떠나가는 배가보이네. 그저떠나가는 배일뿐이야. 그래 그대로 풀어놓은것이 그詩가되었네. 잘잘못은 두고라도 成立의 過程은 象徴의本格이야.”¹⁵⁾라고 이 시의 창작 과정을 밝히면서 ‘象徴의本格’이란 표현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보들레르나 베를레르, 그리고 矢野의 ‘詩學’을 아주 간단히 언급하는 수준 이상의 ‘象徴의詩境’은 깊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 시는 암울한 현실을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어 청운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곳으로 떠나는 젊은이의 심경을 읊은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 시는 젊은이의 심경을 떠나가는 배에다 비유하고 있는데 이것이 박용철이 말하는 ‘象徴의本格’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상징에 대한 그의 이해가 어느 정도인가는 바로 앞에서 말한 그대로이다. 결국 박용철도 하우스먼처럼 낭만주의적 정신을 넘어서지

14) 『박용철 전집』(시집), p. 6.

15) 박용철, 「永朗에게의 便紙」, 『박용철 전집』(평론집), pp. 327~328.

못하고 거기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다.

박용철이 하우스먼 시론의 어떤 내용을 수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하우스먼의 시론이 무엇보다도 창작 과정의 시론이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먼저 하우스먼의 시론 중에서 박용철의 시론과 유사한 세 부분을 인용해 보기로 한다.¹⁶⁾

(1) 詩는 말해진 內容이아니요 그것을 말하는 方式이다. 그러면 그것은 分離해서 따로 연구할수있는것이냐. 言語와 智의內容 그意味와의 結聯은 상상할수있는 가장 緊密한 結合이다. 混成되지않은 純然한 詩意味에서 獨立된 詩 그런것이 어디있겠느냐. 詩가 意味를 가지고 있을때에도 (언제나 그러한것이지마는) 그것을 따로 끌어내는것은 재미스럽지않다. 「콜러릿지」는 말하였다. 「詩는 完全치 않게 大綱만 理解될때에 最大의 愉樂을준다」 그리고 完全한 理解는 어떤때에는 그 愉樂을 減殺시키기까지한다.¹⁷⁾

(2) 점심때 한파이트의 麥酒를 마시고—麥酒는 腦의 鎮靜劑라, 나의 午後의 時間은 나의 一生에 가장 非知性的인 것이 된다—나는 二三時間의 散步를 나가든 것이다. 特別히 무엇을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周圍의 것을 둘러보고 季節의 經過를 따르면서, 내가 걸어 갈 때에 내마음 속으로 갑작한 說明할수없는 感動을 가지고 어느때에는 詩의 一二行이 어느때에는 한꺼번에 一節이 흘러들어온다—것이 그詩의 一部를 形成해야할 運命에있는 詩全篇의 希미한 想을(앞서있든것이아니라) 同伴해가지고, 그런다음에는 한 時間가량의 沈靜이있고 그다음에 아마 그세암은 다시 솟아오른다. 나는 솟아오른다고한다. 이렇게 腦에와서 提供되는 示唆의 源泉은 내가 認識할수 있는限에서는 深淵 卽 (내가 이미 말한바와같이) 胸窩이다. 집에도라오면 나는 그것을 적어놓는다.—다음날 靈感이 다시 찾아오기를바라고 빈틈을 남겨놓고. 어떠한때는 내가 受容的인 또 期待的인 心境을 가지고 걸어다니느라든 바라든대로 되기도한다. 그러나 어떠한때는 나는 그詩를 붙들어서 智力으로 完成시켜야한다. 그것은 試鍊과 失望을 包含한 焦慮와 惱苦의일이요 어떠한때는 失敗로 끝을맺는다.¹⁸⁾

16) 한계전, 앞의 글, 앞의 책, pp. 141~144 참조

17) A. E. 하우스먼, 「詩의 名稱과 性質」, 「박용철 전집」(평론집), p. 60.

(3) 한말로 말하면 내생각에는 詩의 出産이란 第一階段에 있어서는 能動的이라는 것보다 오히려 受動的 非志願的過程인가한다. 만일 내가 詩를 定義하지 않고 그것이 屬한 事物의 種別만을 말하고 말수 있다면, 나는 이것을 分泌物이라 하고 싶다. 樅나무의 樹脂같이 自然스런 分泌物이던지 貝母속에 眞珠같이 病的分泌物이던지간에 내 자신의 경우로 말하면 이 後者인 줄로 생각한다 — 貝母같이 賢明하게 그 物質을 處理했다고 할 수는 없으나, 나는 내가 조금 健康에서 벗어난 때以外에는 별로 詩를 쓴 일이 없다. 作詩의 過程 그것은 비록 愉快한 것이지만은 一般으로 不安하고 疲勞의인 것이다.¹⁹⁾

하우스먼은 “詩는 내생각에는 理性的인 것보다는 肉體的인 것”²⁰⁾이라고 할 정도로 시를 반지성적, 반이성적인 것으로 본다. 이것은 「詩的 變容에 대해서」에서 전개한 박용철의 생각과 그 맥을 같이 한다. 그리고 하우스먼은 시를 ‘樅나무의 樹脂같이 自然스런 分泌物’ 이나 ‘貝母속에 眞珠’ 같은 ‘病的分泌物’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시적 변용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임은 물론이다. 이번에는 박용철의 생각이 하우스먼의 생각과 구체적으로 어떠한 유사성을 지니는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박용철의 글을 인용해 보기로 한다.

(4) 우리의 모든 體驗은 피가운대로 溶解한다. 피가운대로, 피가운대로 한낱 감각과 한가지 구경과, 구름같이 퍼올랐든 생각과, 한 筋肉의 움지김과, 읽은 詩한줄, 지나간 激情이 모두 피가운대 알아보기 어려운 溶解된 기록을 남긴다. 지극히 예민한 感性이 있다면, 옛날의 傳說같이, 우리의 脈을 짚어 봄으로 우리의 呼吸을 들을뿐으로(실상 끊임없이 속삭거리는 이 조곤다—) 얼마나 길고 가는 이야기를 들어낼수 있을것이라.²¹⁾

(5) 이래서 손을 펼 때마다 꽃이 나오는 確實한 境地에 다다르려면 무한한 苦難과 修鍊의 길을 밟아야 한다. 그러나 그가 한번 밤에 흙을 씻고 꾸며는

18) 위의 글, 위의 책, p. 73.

19) 위의 글, 위의 책, p. 72.

20) 위의 글, 위의 책, p. 71.

21) 박용철, 「詩的 變容에 대해서」 『박용철 전집』 (평론집), p. 3

舞臺우에 興行하는 奇術師로 올라설때에 그의손에서는 다만 假花조각이
 펄펄 날릴뿐이다. 그가 뿌리를 땅에 박고 曠野에 서서 大氣를 呼吸하는 나
 무로 서있을때만 그의가지에서는 生命의꽃이 핀다.²²⁾

- (6) 詩는 詩인이 느려놓는 이야기가 아니라, 말을 材料삼은 꽃이나 나무로 어
 느순간의 詩人의 한쪽이 혹은 원통이 變容하는것이라는 主張을 위해서 이
 미 數千言을버려놓았으나 다시 도리켜보면 이것이 모도 未來에 屬하는일
 이라 할수도 있다. 詩人으로서나 저자 사람으로서나 우리에게 가장 重要한것은
 心願에 한點 耿耿한 불을 길르는것이다.²³⁾

하우스먼의 시론과 박용철의 시론은 다음의 세 가지 점에서 대체로
 일치한다. 그것은 첫째, 시는 내용과 언어가 분리할 수 없을 정도의 결
 합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합의 상태를
 하우스먼은 (1)의 '言語와 그智的內容 그意味와의 상상할수있는 가장
 緊密한 結合'으로, 박용철은 (4)의 '한낱 감각과 한가지 구경과, 구름같
 이 떠올랐든 생각과, 한 筋肉의 움지김과, 읽은 詩한줄 지나간 激情이
 모도 피가운대 알아보기어려운 溶解된 기록'으로 각각 설명한다. 둘째,
 한 편의 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많은 어려움을 거쳐야 한다는 것
 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우스먼은 그것을 (2)의 '試鍊과 失望을
 包含한 焦慮와 惱苦의 일이요 어떠한때는 失敗로 끝을 맺는다.'로, 박용
 철은 (5)의 '이래서 손을 펼때마다 꽃이 나오는 확실한 경지에 다다르
 려면 무한한 고난과 수련의 길을 밟아야 한다.'로 각각 주장한다. 셋째,
 시는 어떠한 내용을 직접 드러낸 것이 아니라 변용된 것이라는 견해를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그 점을 하우스먼은 (3)의 '만일 내가 詩를 定
 議하지않고 그것이 屬한 事物의 種別만을 말하고 말할수 있다면, 나는
 이것을 分泌物이라 하고 싶다. 樅나무의 樹脂같이自然스런 分泌物이던
 지 貝母속에 眞珠같이 病的分泌物이던지간에 내 자신의경우로 말하면

22) 위의 글, 위의 책, p. 7.

23) 위의 글, 위의 책, pp. 9~10.

이 後者인 줄로 생각한다.'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는데 이 경우의 분비물이 시적 변용의 결과를 의미하는 것임은 물론이다. 박용철의 생각은 이에 비해 (6)의 '詩는 詩인이 느려놓는 이야기가 아니라, 말을 材料삼은 꽃이나 나무로 어느순간의 詩人の 한쪽이 혹은 원통이 變容하는 것'이라는 데에서 보듯이 직접적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박용철의 하우스먼 수용은 누구도 이를 제기할 수 없을 만큼의 뚜렷한 증거에 의해 확인된다. 그런데 박용철은 하우스먼만을 수용한 것이 아니었다. 릴케를 수용하기도 했던 것이다.

IV. 릴케의 수용

박용철의, 릴케 수용도 외적 증거와 내적 증거의 양측면에서 그 확실함의 정도와 양상이 밝혀질 수 있다. 외적 증거로 들 수 있는 것은 그의 나이 23세 때인 1923년에 동경 외국어학교 독문과에 입학했다는 전기적 사실—그러나 이 학교에서의 공부는 1학년 1학기에서 그치고 말았다—을 들 수 있고 내적 증거로는 그의 시론인 「詩的 變容에 대해서」에 릴케의 시론이 직접 인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내용이 수용되고 있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이 부분에서는 릴케의 수용을 시와 체험, 기다림의 문제, 시적 변용의 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박용철은 「시적 變容에 대해서」에서 릴케의 「말테의 수기」를 인용하고 있는데, 그 원문의 내용과 인용의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 (1) 시라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시피 감정이 아닌 것이다.(감정이라면 젊었을 때에도 충분히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실은 시는 경험인 것이다. 한 줄의 시를 위하여 많은 도회지, 온갖 인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사물을 알아야만 할 것이다. 여러 가지 동물도 배워야 하고, 새들이 나는 법을 느낄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조그만 꽃들이 아침이면 어떤 몸짓을 하면서 피어나는가를 알아야만 될 것이다. 미지의 고장의 길들, 뜻하지 않았던 해후(邂逅), 멀리서 다가오는 것이 보이는 이별, 이런 것을 추억으로 되살려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아직도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어린 시절에 대한 추억, (...) 이런 것들을 시인은 추억으로 되살려낼 줄 알아야만 할 것이다.²⁴⁾

- (2) 詩는 普通 생각하는 것같이 단순히 愛情이 아닌 것이다. 詩는 體驗인 것이다. 한가지 詩를 쓰는데도 사람은 여러 都市와 사람들과 물건들을 봐야하고, 짐승들과 새의 날아감과 아침을 향해 피어날때의 적은꽃의 몸가짐을 알아야 한다. 모르는 地方의길, 뜻하지 않았던 만남, 오래전부터 생각던 이별, 이러한 것들과 지금도 분명치 않은 어린시절로 마음가운데서 돌아갈수가 있어야 한다.²⁵⁾

이러한 인용문을 통해서 우리는 박용철이 「말테의 수기」에 나타난 릴케의 견해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릴케가 말하는 경험과 박용철이 말하는 체험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해 명쾌하게 해설한 이승훈에 의하면, 경험(experience)이란 어떤 대상을 자각하는 주관성의 상태이다. 따라서 주체와 객체와의 사이에는 거리가 유지된다. 모든 객체의 객관적 본질은 이렇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인식된다. 체험이란 용어는 Erlebnis의 역어로 만들어진 것으로 정신과 정서의 동일성, 말하자면 개별적인 주체 속에서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인식 내용을 뜻한다. 경험이 객체, 그러니까 대상과의 거리를 유지한다면, 체험은 대상과의 직접적이고 전체적인 접촉을 강조한다. 대상과의 직접적 접촉은 정서, 혹은 살아 있는 만남을 매개로 한다.²⁶⁾

24) R. M. 릴케, 「말테의 수기」, 강두식 역 (삼중당, 1975), p. 21.

25) 박용철, 「詩的 變容에 대해서」, 「박용철 전집」 (평론집), p. 5.

26) 이승훈, 「박용철의 시론」, 「한국 현대시론사」 (고려원, 1993), pp. 71~72.

릴케는 시를 감정이 아닌 경험으로 보고 있는 데에 비해 박용철은 시를 애정이 아닌 체험으로 본다. 애정을 감정의 일종으로 볼 때 릴케가 경험을 감정과 구별하고 있다면, 박용철은 체험을 애정이라는 협의의 감정과 구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경험이나 체험이 경시되어도 좋다는 뜻은 아니다. 그것들은 경험이나 체험에 못지 않게 두 사람의 시론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근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 경험이나 체험은 두 사람에게 있어서 똑같은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은 한 마디로 해서 기다림이다. 이 점은 박용철이 「詩的 變容에 대해서」에서 인용한 「말태의 수기」의 원문 번역과 박용철의 번역을 통해 명확히 드러난다.

- (1) 시는 끈기 있게 기다려야만 되는 것이다. 사람은 일생을 두고, 가능하면 아주 오래 오래 살아서 우선 끝벌처럼 끝과 의미를 모아 들여야 할 것이고, 그래서 최후에 가서는 아마 실행쯤 되는 좋은 시를 쓸 수가 있을는지 모르겠다. (...) 아니, 그런 모든 것을 생각해 되살리는 것만으로는 어렵도 없다. 하루하루가 같지 않고 다른 맛이 나는 사랑의 밤들을, 그리고 임신부의 부르짖는 소리, 가볍고 흰옷에 감겨 잠자며, 산후에 조리를 하는 여인들, 시인은 이런 모든 것을 추억으로써 지니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죽어가는 사람의 임종도 당해 봐야 할 것이며, 열어 젖힌 창이 바람에 달가당거리는 방에서 죽은 사람을 위한 밤샘도 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억들을 갖는 것만으로는 역시 불충분하다. 추억이 많아지면 그것을 잊을 수 있어야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추억이 다시 올 때까지 기다리는 커다란 인내심이 필요하다. 추억만 가지고는 아직 아무런 소용도 없다. 그 추억이 우리의 피가 되고 눈이 되고 몸짓이 되며, 이름도 없는 것이 되어 그 이상 우리들 자신과도 구별할 수 없이 됨으로써 비로소 아주 우연한 순간에 한편의 시의 최초의 말은 그런 추억의 한가운데서, 추억의 그들로부터 발생해 나오게 되는 것이다.²⁷⁾

27) R. M. 릴케, 앞의 책, pp. 21~22.

(2) 사람들은 全生涯를 두고 될수있으면 긴 生涯를 두고 참을성있게 기다리며 意味와 甘味를 모으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그러면 아마 最後에 겨우 열줄의 좋은 詩를 쓸수 있게 될 것이다. (...) 이런것들을 생각할수 있는것만으로는 넘치지않다. 여러밤의 사람의 기억(하나가 하나와 서로 다른) 陣痛하는 女子의 부르짖음과, 아이를 낳고 헛속하게 잠든 여자의 기억을 가져야 한다. 죽어가는 사람의 곁에도 있어봐야하고, 때때로 무슨소리가 들리는 방에서 창을 열어놓고 죽은 시체를 지켜도봐야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억을 가지므로 넘치지 않다. 기억이 이미 많아진때 기억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말할수없는 참을성이 있어야 한다. 記憶만으로는 詩가 아닌것이다. 다만 그것들이 우리속에 피가 되고 눈짓과 몸가짐이 되고 우리 自身과 구별할수없는 이름없는것이 된 다음이라야—그때에라야 우연히 가장 귀한시간에 詩의 첫말이 그 한가운데서 생겨나고 그로부터 나아갈수있는것이다.²⁸⁾

(1)에서 보듯이 릴케는 좋은 시를 쓰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체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추억이 다시 올 때까지 기다리는 커다란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추억만 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으며 '그 추억이 우리의 피가 되고 눈이 되고 몸짓이 되며, 이름도 없는 것이 되어 그 이상 우리들 자신과도 구별할 수 없이 됨으로써 그때에 비로소 아주 우연한 순간에 한 편의 시의 최초의 말은 그런 추억의 한가운데에서, 추억의 그늘로부터' 발생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체험(추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즉각적으로 시를 쓰는 데에 필요한 체험이 되기 위해서는 기다리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릴케의 견해를 박용철은 (2)에서 보듯이 인용의 형식을 통해 대체로 받아들여면서도 부분적으로는 약간 변경한다. 즉, 릴케는 시인이 '가능하면 아주 오래오래 살아서 우선 꿀벌처럼 꿀과 의미를 모아 들여야' 한다고 한 것을, 박용철은 '될수있으면 긴 生涯를 두고 참을성있게 기다리며 意味와 甘味를 모으지 아니하면 아니된다.'고 변경한 것이다. 릴케가 체험

28) 박용철, 「詩的 變容에 대해서」, 『박용철 전집』 (평론집), pp. 5~6.

(경험)을 쌓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면, 박용철은 ‘꿀벌처럼’이라는 표현을 생략함으로써 체험의 의미와 감미를 강조했다고 할 수 있다.²⁹⁾

그러나 이러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용철이 릴케를 수용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 수용이란, 의미의 굴절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보다 분명히 해야 할 것은 「詩的 變容에 대해서」의 ‘시적 변용’의 개념이다. 이에 대해서는 논자들마다 각각 다르게 주장하고 있다.

김윤식은, 박용철이 말하는 시적 변용은 릴케가 「悲歌」에서 보여준 의미와는 거의 무관함을 지적한다. 박용철이 말하는 시적 변용의 의미는 「말태의 수기」에 드러난 바와 같이 시의 창작 비밀을 말하는 것일 따름이라는 것이다. 김윤식은, 박용철이 말하는 시적 변용의 의미를, 될 수 있는 한 많은 체험의 양을 내포하고 나아가 그 체험이 용해되어 이름 모를 것이 될 때까지 순화되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기다림 끝에 시가 탄생한다는 의미로 정리하면서 그는 “릴케를 읽었고, 또 릴케를 다소 이해한 듯하나 릴케의 본질을 파악했다고는 볼 수 없을 듯하다.”³⁰⁾는 견해를 제시한다.

김용직은 「詩的 變容에 대해서」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이해한다. 그 세 부분은 첫째, ‘우리의 모든 體驗은 피가운대로 溶解한다. 피가운대로, 피가운대로’라고 시가 제작자의 몹임을 밝히는 허두 부분, 둘째, 참고 기다리며 괴로움이나 아픔까지를 시를 위해서 자양화시키는데, 詩作의 주체인 시인의 성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 셋째, 이런 인내와 수련, 고심과 노력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참된 詩를 뜻하는 ‘생명의 꽃’이 피어난다는 부분 등인데 김용직은 박용철이 말하는 시적 변용, 곧 시의 길은 셋째 부분이라고 주장한다.³¹⁾

이승훈은 릴케의 시적 변용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 존재와 세계

29) 이승훈, 앞의 글, 앞의 책, p. 76. 참조

30) 김윤식, 「無名火와 純粹의 論理」, 『한국근대문학사상』 (1976), pp. 232~233.

31) 김용직, 앞의 글, 앞의 책, p. 134.

존재가 하나로 용해되는 경우, 곧 내면공간으로 들어감을 뜻한다는, 김윤식이 인용한 글을 다시 인용하고 이런 의미로서의 변용은 좀더 폭을 넓혀 말하면, 덜타이적인 체험 개념 속에 포섭된다고 주장하면서 시적 변용을 정신의 능동적 변형, 추억이며 동시에 변형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자신의 견해를 제시한다.³²⁾

위의 세 논자의 주장과 견해 속에는 타당성이 있는 반면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도 내포되어 있다. 이제 그 점을 밝혀 보면 다음과 같다. 김윤식은 시적 변용의 의미를 시의 창작 비밀을 말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박용철이 '릴케를 읽었고, 또 릴케를 다소 이해한 듯하나 릴케의 본질을 파악했다고는 볼 수 없'는 이유로 천사를 말하지 않고 대지의 사상, 내부공간 및 변용의 본질을 말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고 있다.³³⁾ 그러나 박용철이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릴케의 「제 9 悲歌」를 말하지 않았다는 점이 릴케와의 영향 관계를 논할 수 없는 이유는 될 수 없다. 영향이란 일단 직접적이고 표면적인 것으로 나타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간접적이고 이면적인 것으로도 나타나기 때문이다. 김용직은 시적 변용을 인내와 수련, 고심과 노력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참된 詩를 뜻하는 '생명의 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 '생명의 꽃'은 시적 변용이라기보다는 어려운 창작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결과물, 즉 시를 뜻하는 표현에 더 가깝다. 이승훈이 제시하는 시적 변용의 의미는 '정신의 능동적 변형, 추억이며 동시에 변형'이다. 그런데 그러한 의미가 수증되려면 박용철이 말하는 체험의 의미가 덜타이적이라는 점이 먼저 논증되어야 한다. 그러한 절차도 없이 덜타이가 능동적 변형을 체험의 속성으로 지정한 사실만 가지고 시적 변용의 의미를 제시했을 때는 시적 변용이 반드시 정신의 능동적 힘에 의해 의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반론에는 전혀 대처할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필자는 릴케와의 관련성을 염두에 두면서 시적 변용의 성격

32) 이승훈, 앞의 글, 앞의 책, p. 79.

33) 김윤식, 앞의 글, 앞의 책, pp. 232~233.

을 다음의 두 가지로 규정해 보고자 한다. 시적 변용은 우선 한 편의 좋은 시를 탄생시키기 위한 시인의 정신적 자세에 대한 개념이다. 한마디로 말할 때 그것은 기다림이다. 그 기다림은 무작정의 기다림이 아니라 ‘무한한 苦難과 修鍊’의 길을 밟는 기다림이며 “하나의 큰꽃만을 바라고 一生을 바치”³⁴⁾는 기다림이 아니라 최후의 한송이의 아주 크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하여 “그보다 적을지라도 덜 고을지라도 數多히 꽃을 피우며 一生을 지나”³⁵⁾는 기다림이다. 다음으로 시적 변용은 시의 형성 과정에 대한 개념이다. 박용철은 그것을 “물과 쌀과 누룩을 비져넣어서 세가지가 다 原形을 잃은다음에야 술이 생긴다. 한百年동안 地下室에 묵여두었던 美酒의 馥郁한 香氣를 詩는 가져야 한다.”³⁶⁾고 주장한다. 이것은 시인이 여러 소재들을 단순히 조합하는 것만으로는 시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박용철의, 릴케 수용의 흔적은 뚜렷하다. 이 경우의 릴케 수용에는 직접적이고 표면적인 것만이 아니라 간접적이고 이면적인 것 또는 굴절된 것까지 모두 포함된다. 그리고 박용철이 말하는 시적 변용의 의미에 대해서는 논리적이고 다양한 시각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 시적 변용의 의미야말로 박용철 개인의 서구 시론 수용 문제는 물론이고 한국 근대시론사의 서술 방향을 정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V. 결 론

지금까지, 서구 시론의 수용을 중심으로 박용철의 시론에 대해 살펴 보았다. 이제 그 내용을 결론 삼아 요약,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박용철이 서구 시론을 수용하게 된 배경으로는 상호 확인이 가능

34) 박용철, 「詩的 變容에 대해서」, 『박용철 전집』(평론집), p. 6.

35) 위의 글, 위의 책, p. 6.

36) 위의 글, 위의 책, p. 9.

한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두 가지 점을 들 수 있는데, 그것의 하나는 박용철이 외국어, 특히 독일어와 영어를 잘했다는 점이다. 이 점은 그의 부친인 朴夏駿, 친구인 張龍河, 金永郎, 李軒求, 靑山學院을 다닐 때의 은사 阿部 등의 증언과 培材高普를 다닐 때의 성적 등에 의해 분명히 드러난다. 그것의 다른 하나는 박용철이 서구시(해외시)를 배우겠다는 열망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 점은 박용철의 창작시가 74편에 불과한 데에 비해 번역시는 무려 308편이나 된다는 사실을 통하여 확인된다. 박용철이 이처럼 서구(해외)의 많은 시인들의 시를 번역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서구시(해외시)를 번역하여 한국에 소개함으로써 한국시의 수준을 서구시(해외시)의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의도의 소산이지만, 이면적으로는 서구시(해외시)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우겠다는 열망을 표출한 것이기도 하다. 박용철이 번역한 시들이 순수 서정시여서 민중들의 삶의 한복판에 가로놓여 있는 사회적, 정치적 문제들을 외면하고 있는 점, 또한 그 서정시들이 릴케, 예이츠 등 몇몇 시인들의 시를 빼면 거의 대부분이 근대시라는 점은 그의 한계이다. 시선을 번역 쪽에 돌려 생각할 때 번역만으로 그 배우의 열망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 열망의 실현은 시의 번역뿐만 아니라 시론의 번역과 수용으로까지 이어져야 가능한 것이다. 이것은 그가 하우스먼의 시론을 번역했을 뿐만 아니라 하우스먼·릴케의 시론을 수용하기까지 했다는 점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2) 하우스먼 시론은 무엇보다도 순수시론이다. 그 순수시론은 아베 브르몽의 순수시론을 포함하는 광의의 순수시론 중의 하나로 그 성격이 규정되기도 한다. 또한 그 순수시론은 하우스먼 자신이 직접 전개한 시론의 내용을 통해 볼 때 창작 과정의 시론이라 할 수 있다. 이 점은 박용철이 시를, 시인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로 보는 시관과 그 맥을 같이 한다. 박용철이 하우스먼의 시론을 수용한 것은 하우스먼의 「The Name and Nature of Poetry」를 번역한 것이 계기가 되었지만, 보다 구체적인 사유는 대체로 하우스먼의 시와 박용철의 시가 지니는 내용

과 시적 분위기의 유사성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그 내용과 시적 분위기가 낭만주의 정신에 토대를 둔 것임은 물론이다. 하우스먼의 시론과 박용철의 시론은 다음 세 가지 점에서 일치한다. 그것은 첫째, 시는 내용과 언어가 분리할 수 없을 정도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 한 편의 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많은 어려움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며 셋째, 시는 어떠한 내용을 직접 드러낸 것이 아니라 변용된 것이라는 확고한 견해를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3) 박용철은 릴케의 「말테의 수기」의 내용을 수용하고 있음이 확실하다. 그러나 그 수용은 직접적인 수용이 아니라 굴절적인 수용이다. 그것은 다음 두 가지 사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릴케는 「말테의 수기」에서 시를 감정이 아닌 경험으로 봄으로써 경험을 감정과 구별하고 있다면, 박용철은 그것의 일부를 번역하여 인용한 「詩的 變容에 대해서」에서 시를 애정이 아닌 체험으로 봄으로써 체험을 애정이라는 협의의 감정과 구별한다. 여기에서 중시해야 할 점이 구별의 객체가 경험이나 아니면 체험이나 하는 쪽에 있지 않고 구별의 대상이 감정이나 아니면 애정이나 하는 쪽에 있다면, 릴케가 말하는 경험과 박용철이 말하는 체험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릴케는 「말테의 수기」에서 시인이 ‘가능하면 아주 오래오래 살아서 우선 꿀벌처럼 꿀과 의미를 모아 들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체험(경험)을 쌓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비해, 박용철은 역시 그것의 일부를 번역하여 인용한 「詩的 變容에 대해서」에서 ‘될수있으면 긴 生涯를 두고 참을성있게 기다리며 意味와 甘味를 모으지 아니하면 아니된다.’고 변경함으로써 체험의 의미와 감미를 강조한다. 박용철이 말하는 시적 변용의 의미에 대해서는 릴케와의 관련성을 염두에 두면서 다음의 두 가지로 성격을 규정할 수 있다. 시적 변용은 우선 한 편의 좋은 시를 탄생시키기 위한 시인의 정신적 자세에 대한 개념이다. 한 마디로 말할 때 그것은 기다림이다. 그 기다림은 무작정의 기다림이 아니라 ‘무한한 苦難과

修鍊'의 길을 밟는 기다림이며 최후의, 한 송이의 아주 크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한 일생의 기다림이다. 다음으로 시적 변용은 시의 형성 과정에 대한 개념이다. 이것은 시인이 여러 소재들을 단순히 조합하는 것만으로는 시가 될 수 없다는 점과 밀접하게 관련된다.